

뻗속까지 한국인 리디아 고 뉴질랜드에 보은하다



스포츠 세상

박병헌 언론인·전 세계일보 체육부장

서울서 태어나 6세 때 뉴질랜드행... 비시즌 뎀 토속 한국음식 즐겨 전 세계 26승으로 아직 진행형... 매년 골프 꿈나무 초청 재능 기부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투어에서 활약하며 2020도쿄올림픽 골프 여자부에 출전한 뉴질랜드 교포인 리디아 고는 뻗속까지 한국인이다. 그의 한국명은 고보경이다.

그는 매년 11월 말 LPGA투어 시즌이 끝나면 서울의 집으로 돌아와 휴식을 취하고 두 달가량 머물다가 미국으로 돌아간다. 부모와 함께 서울에 머무는 동안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한국 음식을 싣고 먹고 긴장장애 등 토속적인 음식을 좋아한다. 미국에서 투어를 뛰는 동안 먹고픈 음식이지만 쉽게 접할 수 없는 것들이다.

우리 말 소통에도 전혀 지장이 없다. 뉴질랜드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다녔지만 가족 간 대화는 우리 말로 주고받았던 결과이다. 대학은 외국인 특례입학으로 고려대 심리학과에 입학했다.

어려서부터 뿔성부른 골프영재

서울에 머무는 동안 그는 골프채를 일절 잡지 않는다. 골프와는 일부러 가급적 멀리는 게 오래된 습관이다. 휴식 기간에는 한국 음식에 대한 식도락 여행을 다니는 것을 빼놓지 않는다.

천주교 세례명을 이룸으로 쓰는 리디아는 서울에서 출생하였고, 6세 때 부모와 함께 뉴질랜드 오클랜드로 이민 갔다. 어려서부터 집중력이 뛰어나고 골프에 소질이 있는 리디아를 보다 저렵하고 좋은 환

경에서 골프를 가르쳐 보겠다는 부모의 생각 때문이었다.

리디아는 한국에 있던 시절인 5세 때부터 골프를 시작했다. 이민을 간 뒤 부모는 골프장과 가까운 위치로 집을 이사할 만큼 골프선수로서 대성할 딸의 꿈을 지원하는데 열정적이었다. 오클랜드는 뉴질랜드의 수도는 아니지만 한국 교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경제·무역의 중심지이다.

리디아는 9세 때 대회에 처음 출전하였고, 11세 때 뉴질랜드 아마추어 메이저대회를 평정해 '천재 골프소녀'로 불렸다. 남반구 최고의 선수였다. 리디아는 2012년 1월 호주 여자프로골프(ALPG)투어 뉴사우스웨일스(NSW) 오픈에서 14세 9개월 5일의 나이로 우승, 세계 남녀 프로골프대회를 통틀어 사상 최연소 우승 기록을 세웠다. 그해 8월에는 US여자 아마추어선수권에서도 우승하면서 뿔성부른 떡잎으로 성장했다.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던 것도 이때였다.

장타보다는 정교한 샷이 강점

뉴질랜드는 한국과 달리 운동선수라 할지라도 모든 정규수업을 마친 뒤에야 골프에 전념할 수 있었다. 리디아는 집 근처 골프장에서 어둠 때문에 공이 안 보일 때까지 날마다 연습을 거듭했다. 특히 키가 남들만큼 크지 않은 그는 비거리보다는 정교한 샷과 쇼트게임 능력이 뛰어나다. 드라이버 티샷 거리는 투어 60위권으로 고만고만하지만 매우 정확한 아이언 샷으로 비거리의 약점을 커버한다. 설령 아이언

샷을 온 그린 시키지 못하고 러프 혹은 벙커에 빠진다 해도 쇼트게임이 매우 뛰어나서 스코어를 잃는 일은 좀처럼 없다.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골프의 금언 중 하나인 '골프는 두 번째 샷부터'라는 표현에 가장 잘 들어맞는 선수라고 할 수 있다.

그는 고국을 떠나 골프 유학을 갖기에 골프로 입신하겠다는 집념과 열정을 불태우며 골프에 매진했다. 리디아는 때로는 테니스 선수 출신인 아버지로부터 레슨을 받기도 했다.

특히 2012년 8월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LPGA투어 CN 캐나다 여자오픈에서 우승하면서 렉시 톱슨(미국·16세 7개월)이 갖고 있던 종전 최연소 우승 기록을 15세 4개월로 15개월 이상 앞당기면서 큰 화제를 모았다. 리디아는 이 경기 우승으로 통산 다섯 번째 아마추어 선수의 LPGA투어 우승을 달성한 것은 물론 1969년 조앤 카너(버티스 인비테이셔널 우승) 이후 43년 만에 이 기록을 수립했다.

아마추어는 프로대회에서 우승하더라도 상금을 받지 못한다. 대신 리디아의 프로 진출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음을 알렸다. 그의 프로 진출에 온갖 관심이 쏠렸다. 이 대회에서는 2013년에 2연패를 달성하며 더 이상 아마추어에 있을 그릇이 아님을 입증하였고, LPGA투어 프로들의 기대 속에 프로 전향을 선언하기에 이른다.

프로가 된 뒤 첫 대회 출전은 한국 여자프로골프(KLPGA)투어였다. 2013년 12월 대만에서 열린 스윙잉 스킵스 월드 레이스 마스터스에서 보기 좋게 우승하며 프로 데뷔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다.



뉴질랜드 교포 리디아 고가 지난해 미 오클랜드 실베이니아의 하일랜드 메도스 CC에서 열린 LPGA 투어 마라톤 클래식 3라운드 경기를 펼치고 있다.

뉴질랜드 역대 최고인 리우 은메달

리디아는 탄탄한 실력을 갖춘 덕분에 프로에 데뷔한 뒤에도 승승장구했다. 2014년 4월 LPGA투어 스윙잉 스킵스 LPGA 클래식에서 우승하며 그해에 3승을 쌓은 그는 2015년에도 메이저대회인 에비앙 챔피언십을 포함해 5승을 거뒀다. 2016년에도 4승을 거뒀지만, 2016 리우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어 자신의 위대성을 만방에 알린 것은 하이라이트였다. 뉴질랜드 역사상 역대 올림픽에서의 최고 성적이었다. 그가 뉴질랜드의 국민적인 영웅

으로 칭송되는 이유다.

이러한 경기력과 성실성을 앞세운 리디아는 미국의 세계적인 클럽용품사인 PXG로부터 5년간 1000만달러(약 115억원)의 타이틀 스폰서를 받게 됐지만, 2017년에는 한 번도 우승을 차지하지 못하는 부진을 겪었다. 그러나 2018년 4월 LPGA투어 메디힐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올해 4월 롯데챔피언십을 제패하며 LPGA투어 통산 15승을 달성했다. 유럽골프투어 등 총 26승을 기록 중이다.

리디아는 해병대 장교 출신인 아버지의 사업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뉴질랜드 정부와 골프협회로부터 적잖은 금전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골프에 매진했다. 뉴질랜드 정부와 골프협회의 도움은 리디아가 세계적인 골프선수로 성장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한 인화나 교민단체로부터는 이렇다 할 도움을 받지 못했지만 말이다.

여자골프 세계랭킹 1위 등 골프 하나로 부와 명예를 쌓은 리디아는 뉴질랜드 정부에 보은을 하고 있다. 의리와 함께 고마움을 늘 가슴에 품고 있을 정도다. 7년 전부터 뉴질랜드골프협회로부터 추천받은 주니어 여자선수 5명을 매년 자신의 집이 있는 미국 올랜도로 초청해 함께 숙식하며 재능 기부를 하고 있다. 물론 항공료와 일주일간의 체재비 등 모든 경비는 그가 책임진다. 자신이 받은 은혜를 다소나마 갚겠다는 의미다. 리디아가 뉴질랜드 국적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최근 숨진 외할머니 영전에 숭배치김

올해 24세인 리디아는 웬만한 선수들이 꿈도 못 꿀 커리어를 다 이루었고, 현재 진행형이다. 뻗속까지 한국인인 그가 앞으로 더 기대되는 것은 무리도 아니다. 외모나 경기 중간중간 웃는 모습을 보면 영락없는 소녀이지만, 매우 강한 정신력을 가진 선수이기도 하다. 2020도쿄올림픽에 뉴질랜드 국가대표로 출전한 그가 5년 전 획득한 은빛 메달을 이번에는 금빛으로 바꿀 수 있을지 기대되는 대목이다. 더구나 자신을 그토록 애써해주던 외할머니가 최근 하늘나라로 떠났지만 올림픽에 집중하느라 제주에 마련된 빈소를 찾지 못했다. 그 대신 금메달을 외할머니 영전에 바치고픈 그의 선전을 기대한다.

서민들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정부



예술과 인생

김수영 서양화가·수필가

벼락거지 된 서민 위해 '서민경제부흥대책위'라도 설치하라 4년 만에 아파트값 52% 올라... 앓아서 5~6억 도둑 맞은 꼴

청와대 주인이 대통령으로 출발할 때 선서할 때 "나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라는 장면이 있었다.

이는 어마어마한 책임과 의무이자 생명과 다름없는 막중한 일이다. 그러나 그가 선서한 지 어언 4년이 되었고 그 선서는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모두가 허사가 되어 버리고 말았다.

이제 임기 말년이 다 되어 지난 일들을 하나씩 되돌아보면 지금은 코로나가 창궐하여 모든 백성이 입을 막고 다니면서 제대로 경제활동도 하지 못하는 물론, 다정한 친구나 가족조차도 제대로 만나지

못하는 비극의 연속이다.

게다가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와 책무 그리고 직무는 저 높은 하늘 위로 날아가 버려서 이른바 강남 부자들, 운동권 부자들, 그리고 있는 집 사람들만 배가 점점 더 불러질 뿐 일반 서민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목숨을 걸고 집을 사려고 해도 집값은 천정부지로 상승하고 말았다.

서민경제, 말은 참으로 미끈하고 그럴듯하다. 그러나 지금 거리에 나붙은 '점포 임대'라는 문구를 보면서 경제팀 담당자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서민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현실에 대한 감이 안 오시는가. 중소기업인들의 이자·채무 비율을 일일이 언급하지 않아도 비극의 강

도는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지경이다.

게다가 현 정부 들어서 27번이나 주택 부동산 대책을 세웠지만 집 없는 무주택자들의 아우성은 눈물이 날 지경이다.

통계청의 수치로 보면 아직도 무주택자의 비율은 약 50%에 이른다. 그러나 그 무주택자들을 위한다고 큰소리치는 이 정부 들어서 아파트값이 무려 52%나 상승하고 말았다. 이 수치는 박근혜정부 때보다 2배가 더 많은 수치이다.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은 10억원을 돌파했다. 6억원이던 아파트가 현 정부 들어서 거의 2배가 올라 10~11억이 되고 말았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서울의 무주택자들은 앓아서 5억원을 사기당한 꼴이며 소

위 말하는 '벼락거지'가 된 꼴이다.

새로 아파트를 사려고 했던 사람이 준비하고 있던 금액에서 무려 5억원 이상을 더 보태야 아파트를 살 수 있으니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이 어디 있다는 말인가?

강남 부자들, 운동권 부자들, 있는 집 부자들은 가만히 앉아서 5억~6억원 이상을 벌었지만 없는 무주택자들은 현 정부의 주택 정책, 부동산 정책을 실패로 말미암아 앓아서 5억~6억원을 손해입게 된 것이다.

도무지 말이 되는 일인가. 국민의 50%가 무주택자들인데 그들의 허탈감과 실망감, 그리고 자존감은 어찌 되며 무슨 능력으로 불과 4년 동안 5억, 6억을 벌여 아파트를 사게 될 것인가.

그동안 무슨 '대책 회의'도 자주 열리고 '진상규명위원회'도 자주 만들고 '긴급대책 위원회'도 열리는데 이 정부 들어서 서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 혹은 '주택 정책

무대책'은 27번이 아니라 270번을 해도 부족하여 불과 4년 사이에 서민은 급속같은 돈을 5억~6억원을 빼앗기고 말았다. 낙심에 빠진 서민을 위해 '서민경제부흥대책위'를 설치하고 대책을 마련해줘야 할 것이다.

최근 북한과의 전화 회선 복구에 이 정부는 오무방정을 떨면서 "이제 시작이다"라며 환영하고 벌써 북한에 백신공급이나 무슨 지원을 할까 짜사랑에 애걸복걸이다. 이는 정권 재창출을 위한 치밀한 오케스트라 작업이며 짐수의 달인들이 만들어 내는 치졸한 북한 의존 선거를 위한 일이다.

그러나 청와대 주인은 이걸 알아야 한다. 우리 국민은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라는 선서를 한 것을 기억한다. 또 북한이 우리 공무원을 화형하고 총살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수백억 국민의 세금으로 세운 우리 재산을 일방적으로 폭파

해버린 것 등을 기억한다.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고 국민의 자존심을 폭파시킨 것에 대한 일인반구 사과 없는 북한과 어떤 적전도 세워서는 절대 안 된다.

이는 대한민국의 국민 정서와 관계있는 준엄한 사항이다. 이것을 쉽게 생각하고 아무런 제재 없이, 사과 없이, 아무런 일 없던 것처럼 그냥 넘어간다면 이는 우리 정부와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확실히 질고 넘어가야 할 일이다.

소위 '운동권 민주주의'를 위한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국민의 생명이 사라지고 국민이 낸 재산이 폭파되는 것도 무시한 채 선불리 정권 재창출에 눈이 어두워서 안 된다. 국민이 이를 절대 용서치 않을 것이다.

이제 남은 임기 1년 동안 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얼마나 더 힘있게 할까 지레 걱정이 앞선다. 제발 더 괴롭히고 더 힘있게 하지 말았으면 한다.

“누가 내 삶을 만들어 줄 것인가. 오로지 내 스스로 한 층 한 층 쌓아 갈 뿐이다.”

〈산에는 꽃이 피네〉 〈텅 빈 총만〉 등
법정 스님의 영혼을 울리는 명수필

법정 스님
일한 10주기를 기념한
2019 50주년
지평 600호 기념판

법정 글 | 216쪽 | 12,000원

사무소 서울시 중로구 창경궁로35길 26 2층 (03076)
전화 02-763-8961 홈페이지 www.isamtoh.com